

参考文献

- Boettner, L.
1957 *The Millennium*.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 1977 "Postmillennialism", in *The Meaning of Millennium*, ed. by R. G. Clouse.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pp 63-92.
- Erdman, Charles R.
1922 *The Return of Christ*, NY : Doran.
- Hoekema, A. A.
1977 "Amillennialism", in *The Meaning of Millennium*, ed. by R. G. Clouse.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pp 155-188.
- 1986 개혁주의 종말론, 유호준 역, 기독 문서선교회.
- Hoeksema, H.
1974 *Behold he Cometh :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 Reformd Press.
- Hughes, Ph. E.
1990 *The Book of the Revelation*. Grand Rapids : Eerdmans.
- Hooyt, H. A.
1977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in *The Meaning of Millennium*, ed. by R. G. Clouse.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pp 63-92.
- Kik, J. M.
1971 *An Eschatology of Victory*.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 Ladd, G. E.
1975 "The Parable of the Sheep and Goats in Recent Interpretation", *Tewnty-fifth Anniversary Volume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 Ladd, G. E.
1977a "Historic Premillennialism", in *The Meaning of Millenium*, ed. by R. G. Clouse.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pp 17-40.
- 1977b "An Historic Premillennial Response", in *The Meaning of Millennium*, ed. by R. G. Clouse.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pp 93-94.
- Robertson, O. P.
1980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J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 Walvoord, J. F.
1974 "Review of the Presence of the Future", *Bibliotheca Sacra*. 131 : 273.
- 김기홍
1988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 서울 : 도서출판 창조성.
- 박아론
1992 "총신의 종말론적 전통", 신학지남. 제 59 권 제 4 집 : 4-5.
- 최홍석
1992 "현대교의학에서의 천년왕국과 종말", 신학지남. 제 59 권 제 4 집 : 7-48.
- 한정건
1991 현대종말론의 성경적 조명. 기독교문서선교회.
- 1992 종말론 강해. 기독교문서선교회.
- 헨드릭슨, 윌리암
1975 신약성경 주석 : 요한계시록, 김영익 문영탁 공역. 아가페출판사.

高神大學校
論文集第20輯
1993 pp. 179~206

땅 : 성경적 조명에서 본 토지 공개념

한정건*

(이 논문은 1991년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재 한국에서 일고 있는 토지에 대한 투기 붐은 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해치는 사회 악의 한 요인으로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막연한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비판의 소리는 높지만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의 정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토지가 어떻게 공적인 것이며, 그것을 인간은 어떻게 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살피고자 한다. 성경은 어느 특정한 종교에 국한된다는 제한성이 있겠다. 그러나 성경은 우주의 근원과 목적의 원리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우주철학의 기본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성경은 인류문화의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경의 원리는 곧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토지 공개념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논문 목적은 토지의 공개념을 찾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토지에서 인간이 행해야 하는 사명을 또한 성경을 통하여 살피고자 한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현상과 인류의 역사를 살펴 볼 때에 인간이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가 힘들 것이다. 성경에서도 역시 인간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그러한 실패속에서 자포자기하고 말 것인가? 성경은 현실의 비참함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을 제공한다. 그들이 가진 풀임없는 희망, 이것은 바로 '신학'이라는 도구로서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땅을 역사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다룰 때에 땅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브르거만은 "땅은 확실하게 역사적이다. 그러나 그 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땅은 항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한다(브르거만, 1992 : 6).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서 땅을 다룰 때에 현실적인 역사에서 신학적인 의미로 전향하지 않으면 안된다(Oudersluys, 1979 : 4). 성경에 나타나는 땅의 주제는 현실 세계에서 영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기능으로 승화되어 이스라엘 역사에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Kaiser, 1981 : 302 참조), 이 신학적인 조망에서의 땅의 역할을 살피는 것도 본 논문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 고신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약속과 땅’에 대하여 쓰고 있다(Oudersluys, 1979 : 4).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또 잃으며, 다시 차지할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구약성경이 엮여져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계시역사에서 ‘땅’은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라이트, 1989 : 60f). 땅은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주는 약속에 ‘땅’이 그 핵심 요소로 등장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실패에서도 ‘땅’이 그 반응을 나타낸다. ‘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극단적인 축복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둘의 관계에 따라 황폐화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 속에서 또한 ‘땅’은 인간의 행복을 약속해 주는 ‘희망’의 대상으로서도 항상 존재한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땅이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 근본 원리를 규명함과 동시에, 보다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며, 또한 그 땅에서 얻을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II. 창조된 땅과 인간의 관계

1. 준비된 땅

성경의 첫머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天地)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한다(창 1:1).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고백이며 또한 기독교의 근거가 된다. 창세기 1:1에 하나님께서 天(하늘 혹은 우주에 해당)과 地(지구 혹은 땅)를 창조하셨고, 2절에서부터는 그 중에서 땅과 관계된 창조역사로 옮겨진다. 2절에서 원시상태의 땅을 세가지 면으로 써 묘사한다 : (1) “흔돈”(תוֹהַת, TOHU, formless)하고 “공허”(וְהַבָּה, BOHU, unprepared, unfurnished)하며 ;¹⁾ (2) “깊음”(מְוֹתָה)위에 “흑암”(שָׁבֶן)이 있었고 ;²⁾ (3) 표면은 물로 덮여 있었다. 이상은 땅이 얼마나 무질서의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이 흔돈된 땅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מִרְחָה תְּהִלָּה)”³⁾의 말로써 이 땅을 정돈해 나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됨을 알린다. 3절부터는 하나님은 질서 이전의 땅의 상태를 어떻게 질서의 세계로 만들어 가는지를 밝힌다. 이 땅의 완성은 7일이라는 구조로써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세번째까지는 무질서(흔돈)을 질서로 바꾸어 놓는 순서이며, 다음의 세번은 통치자를 두시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질서를 형성해

1) LXX(70인 역)은 흔돈(תוֹהַת)를 αοπατος(invisible, 보이지 않는)으로 번역한다. BDB 히브리어 사전은 흔돈(תוֹהַת)를 “formless”라는 의미를 주며, Holladay, Keohler & Baumgartner의 사전은 “wasteland, nothingness”로 해석한다.

2) 깊음(מְוֹתָה)은 동사 מָהַן(에서 나왔다)에서 나왔다. 깊음은 ‘떠들다, 전통하다, 땅이 울리다’(소리굽쇠)가 전통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음)는 뜻으로 “하늘의 궁창에는(ך) 새가 나르라”고 할 때에 이것은 ‘공중위’라고 할 필요없이 ‘공중에’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운행하다(מִרְחָה)는 단어는 Piel 분사형으로서 신 32:11에도 같은 형의 이 단어가 나타난다. 신명기서에는 독수리가 새끼 보호하기 위해 그위(주위)를 맴돌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창 1:2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알을 품듯 혹은 새끼를 보호하듯 수표면 위를 배회하는 모습으로 연상할 수 있다.

나갈 때에 첫째로 혼돈, 어둠, 혹은 물을 물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나눔(빛과 어둠의 분리, 물과 물의 분리)이라는 방법도 이용하신다. 이렇게 하여 정리가 된 이후 통치자를 두셔서 땅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נָרַב) 앞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셨다. 즉 넷째날의 광명체들을 위해 빛과 어둠이 분리되어 정돈되었으며, 다섯째 날의 새와 물고기를 위해 둘째날에 궁창과 물이 분리되어 정리되었고, 여섯째날의 짐승을 위해 세째날에 물(육지)과 식물들이 준비되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위해 앞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것이다.

2. 땅의 지배자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심

창조기사에서의 절정은 인간을 창조하심이다. 인간의 창조에서 특이한 것은 그 창조의 방법에서 땅의 땅으로서 빛과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과, 가치(價値)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1:26-27). 땅으로 만드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땅과 관계가 밀접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져서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 보다도 특이하며 우수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창조기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무작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을 빙 땅에 두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을 먼저 창조하셨으며, 이 땅이 잘 정돈되게 하셔서 사람을 맞이하게 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것임이 분명하다. 이 땅에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자손에 대한 축복까지 주셨다. ‘정돈된 땅’과 ‘풍성한 자손’ 그리고 ‘풍성한 열매들과 짐승들’ 이것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복’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수동적인 축복을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능동적 활동까지도 부여하셨다. 이로써 사람은 앞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로써 사람이 땅에 속하였음과 동시에, 땅은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Alfaro, 1978 : 51).⁵⁾

땅은 하나님의 것이면서 사람에게 예속되었다. 하나님과 땅 관계 사이에 사람이 끼여들게 되었으며, 이때의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볼 수 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다. 사람은 이 ‘좋은 것’을 부여 받아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갈고 닦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다(라이트, 1989 : 81f; 참조 Alfaro, 1978 : 51f).

이로써 창조의 모든 것은 끝났다(כָּלָל, 완성되었다). 완성은 중지 혹은 끝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즐기는 장면으로 넘어감을 의미한다. 이제는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감을 포함)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

5) ‘땅에 속하였다’고 함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땅위에서 땅의 것을 식물로 하여 살아가야 하는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땅이 사람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땅은 사람에게 위탁되었으며 사람이 땅을 지배하는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 이더라”(창 2:3). ‘안식’은 중지가 아니라 번성과 번영, 쉼과 축복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참된 안식은 에덴동산에서 나타난다.

3. 선물로 주어진 땅 에덴에서의 안식

성경에서 창조기사는 이중으로 나타난다. 첫번째의 기사는 창세기 1:1-2:4상이며, 두번재는 창세기 2:4하-25의 기록이다.⁶⁾ 첫번째 기사에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하늘이 먼저 나오고 땅이 뒤에 나옴), 두번재의 기사에서는 땅으로부터 시작한다. 첫번째의 것은 혼돈된 상태의 땅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뒤의 것은 땅이 “비가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며”,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아니하는” 황무지 상태에서 땅이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모습으로 창조되어 감을 묘사한다(이병렬, 1985: 60ff 참조).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창조가 완성된 땅은 에덴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2:8 이하). 거기에는 네개의 강이 흐르고 있고,⁷⁾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었다(9, 17절). 그 중에 생명나무의 실과는 가장 뜻보이는 것이었다(9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둠). 그리고 각종 새와 짐승들을 두셨다(9절상).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혼자서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여자까지 창조하여 그에게 주심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창세기 2:15에는 4개의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 단어들은 인간과 땅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취하여’(**נָקַל**)⁸⁾, 에덴에 ‘두시고’(**נָתַן**),⁹⁾ 그곳을 ‘관리하게’(**עֲבֹר**),¹⁰⁾ 그곳을 ‘지키게’(**מִמְשָׁל**) 하셨다(2:15). **נָתַן** 와 **נָקַל**라는 단어에서는 인간의 거처(즉 에덴동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하사(下賜) 하셔서 거기서 안식하게 하셨고, **עֲבֹר** 와 **מִמְשָׁל**이라는 단어에서는 인간은 청지기로서 땅을 관리하고 지켜야 할 사명이 주어짐을 알 수 있다(이병렬, 1985: 70ff 참조). 인간이 비록 하나님에게 봉사하였고 또한 노동을 하였지만 이것은 자발적이며 기쁨의 것이었고 쉼의 한 수단이었다(idem, 1985: 72).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다(2:8 참조).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였기에 땅은 하나님

6) 혼히 이중적인 창조기사를 두고 각각은 두개의 다른 전승들로 인식하기도 한다. 1장은 주로 E문서 (ELOHIM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남)로 명명하였으며(후에는 오히려 P문서로 보기도 함), 2장은 J문서(JEHOVAH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남)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 문서설을 다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취급하지 않겠다. 이것에 대한 토론을 위해 Green, 1979: 4-36; Harrison, 1969: 500-519를 참조하기 바란다.

7) 네개의 강은 비순, 기흔, 헛데겔, 유브라네이다. 그 중에 앞의 두개는 어디에 있는 무슨 강인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헛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며(단 10:4 참조), 다른 하나의 강은 유브라네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모습을 그리면서 강이 흐르는 장면들을 묘사한다(계 22:1-2).

8) 한글개역성경에는 **נָתַן**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번역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נָתַן**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으로 옮기신 행동하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주할 땅을 자신의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셔서 제공하셨음을 인식해야 한다.

9) 한글개역성경에도 **נָתַן**를 “두시고”로 번역하여 그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נָתַן**은 ‘편히 쉬다’ 혹은 ‘안락하다’의 의미를 내포한다(이병렬, 1985: 71 참조).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נָתַן** 하심을 한글개역성경은 “안식하게 하심”(rest)으로 번역하였다(출 33:14; 신 12:9). 이 단어는 ‘plant’와 ‘rest’의 복합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Kaiser, 1981: 307). 따라서 본문은 사람을 에덴에 ‘두심’단이 아니라 그곳에서 ‘안식’하게 하심을 내포한다.

10) **עֲבֹר**는 ‘봉사하다, 종으로서 일하다’의 의미로써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주어짐을 알 수 있다.

님의 소유였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신 후 땅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 땅을 축복하시며, 또한 땅에 거니시면서 즐기시는 분이시다(창 3:8). 땅은 결코 주인없는 공간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장소”이다(브루거만, 1992: 27). 강과 풍성한 열매가 있었고, 그곳에서 짐승들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복의 모습이었다.

요약한다면 창조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며(라이트, 1989: 90), 그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고, 인간은 ‘청지기’로서 땅의 지배자로 세움을 받았다(Oudersluys, 1979: 6). ‘하나님의 소유’와 ‘청지기’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땅은 인간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으며, 인류에게 공동적으로 위탁된 것으로서, 인간은 땅을 공유하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이다(라이트, 1989: 82). 이 땅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서, ‘창조주’와 ‘청지기’의 관계가 잘 유지되었을 때에 그 것을 차지한 인간은 ‘축복’을 누렸음을 발견할 수 있다.

III. 타락후의 인간과 땅의 관계

1. 땅이 저주를 받음

인간이 청지기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했을 때에 인간에게 ‘땅’에서 ‘안식’의 축복이 있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¹¹⁾ 땅의 축복을 잃게 되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 3:17). 땅은 더이상 풍족한 소산을 내지않게 되었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19절). 그리고 땅은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냄으로써 인간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된다(17절).

2. 땅을 잃고 방랑자가 됨

타락한 결과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방황하게 된다(창 3:24). 그들의 옛 삶의 터전을 끌어버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의 길을 그룹이라는 천사와¹²⁾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옛 에덴에서는 강이 있었고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땅을 경작해야만 소출을 얻게 된다(3:23). 사람은 이로써 땅을 잃음과 풍족한 소출을 얻지 못하는 이중적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두번째 범죄로 꼽히게 되는 사건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역시 이중적인 고통이 주어졌다. 먼저 가인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유리해야 하는 저주를 받았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창 4:12하, 14). 그리고 그가 빛을 갈아도 땅은 다시는 풍성한 소출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다(4:12상). 땅을 잃고 방랑자가 되어야 함과 땀을 흘려도 풍성한 소출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받은

11) 인간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끊어졌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창 3:10).

12) ‘그룹’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성역(聖域)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별과 동일한 것이었다.

가인이 땅에서 성을 쌓고 정주함으로써(4:17) “땅에서 유리(遊離)하는 자가 되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거역하였다. 이와같은 거역행위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에서도 거듭 나타난다. 사람들이 시날평지에¹³⁾ 모여 서로 말하기를 “성과 대(臺)을 쌓아 대 꼭대기 끝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흘어짐을 면하자”고 하였다(창 11:4). 이것은 땅을 잊은 자로서 방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린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흘으셨다”(11:19하).

IV. 땅에 대한 약속과 실현

1. 창조질서로의 회복에 대한 약속 (노아와의 언약)

범죄로 인하여 땅(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약속을 주셨다. 이 회복의 약속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여러번 주어졌다. 이것이 노아와의 언약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 약속은 인간이 가장 부패하여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노아에게 주어진 것이다.

노아와의 언약은 ‘창조질서 회복의 언약’으로 규정지를 수 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 7). 이것은 창조기사에 나타나는 말과 같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1:28).

하나님은 또 노아에게 “땅의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고기가... 이들은 너희 속에 불이웠음이라”고 말씀하셨다(9:2). 이것은 창조기사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1:28하)고 하신 말씀과 비교될 수 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라사대 이 언약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만 하시는 언약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고 하셨다(9:9). 땅위에 있는 모든 생물과 맺는 언약임을 하나님은 거듭 밝히므로써 강조한다(창 9:11, 12, 15, 16, 17).

이상에서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을 통하여 창조질서에의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다. 회복의 최종점은 인간이 축복의 옛 땅을 도로 찾아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규정지를 수 있을 것이다.

2. 땅을 주실 약속 (아브라함과의 언약)

노아의 후손들은 얼마가지 않아서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으므로써 노아와 맺은 회복의 언약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만약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13) “시날”은 남부 바벨론 지역의 옛도시 우루과 예렉이 있었던 지역을 말한다(IDB, IV : 332).

더 극심해 질 것이며, 따라서 회복의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하게 될 것이다. 이제 회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 먼저 하나님은 그 범죄의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셨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15:7).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다(12:2).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니, 곧 ‘땅’과 ‘자손’과 ‘축복’이다.

세가지의 약속 중에서 ‘땅’(ארץ)은 가장 기본적이고 첫째되는 약속이며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단어이다(Kaiser, 1981: 302).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거듭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14);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파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이 준비하신 땅으로 불러내심은 첫번째 인간 아담을 “취하여” 에덴에 “두심”과 비교가 될 수 있다. 선택된 한 사람을 새로운 땅으로 옮기심으로 회복은 시작되었다. 타락한 이후에 방황하고 유리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저주의 철회를 의미한다. ‘땅을 차지함’은 회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풍족한 소산을 먹으며 평화를 찾는 축복이 따라와야 회복이 완성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심도 회복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언약을 통하여 주셨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주어지는 것이었다:

내가 내 익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끝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7-8);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땅을...네 자손에게 주노니...(15:18-21).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 언약은 종주권(宗主權) 언약으로 규정된다. 이것은 쌍무적(bilateral)이 아니라 ‘일방적’(unilateral) 언약이다(카이저, 1989: 60).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단지 “내가 이땅을...네 자손에게 주노니”라는 말씀만 있을 뿐이었다(브르거만, 1992: 47 참조).¹⁴⁾ 따라서 족장들에게 주신 땅은 순수한 ‘선물’로 보아야 한다(Kaiser, 1981: 303). 땅은 창조주의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그가 원하는 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선물을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성경은 이것이 ‘영원한 언약’(מְלֵאת עֵדוּת בָּבֶן)임을 강조한다(창 17:7, 13, 19). 인간은 이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잘 보존해야 한다(Alfarro, 1978: 52). 그러나

14) 족장들에게 일방적인 언약에 의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다음 구절들에서 나타난다: 창 13:15, 17; 24:7; 26:3-6; 28:13-14; 35:12; 48:4; 50:24 (Kaiser, 1981: 303 참조).

혹시 인간이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맷은 이 언약은 파괴될 수 없으며, 따라서 언약을 통하여 준 선물의 약속도 완전히 철수되지 않을 것이다(Kaiser, 1981 : 303 참조).

‘땅’의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적인 회복을 향하는 계시역사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이로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역사는 힘 있게 출발하게 된다.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작점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전 역사를 구성하는 핵으로 자리잡는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땅-추방(land-expelling)과 땅-기대(land-anticipating)의 역사이다(브르거만, 1992 : 69ff ; Kaaiser, 1981 : 308 ; Davis, 1974 : 36-48). 즉 땅을 중심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스라엘이 항상 땅을 차지하고 있은 것이 아니다. 한때는 땅을 차지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잊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상속에는 ‘땅의 약속’이 항상 자리잡고 있었다(Oudersluys : 1979 : 5). 이 약속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의미를 제공하여 왔다.

3. 약속의 재확인 (모세의 언약)

(1) 약속의 땅을 향하여

구약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땅이 없음’에서 시작하여 ‘땅을 차지’하려 나아가는 큰 주제가 나타난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성경을 흔히 ‘구속의 역사’라고 부른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구속의 사건은 출애굽이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땅이 없음에서 시작하여 땅을 차지하려 나아가는 노정으로 이루어진다(Oudersluys, 1979 : 5). 그러나 그들에게는 막연하게 땅이 없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조상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약속에 근거하여 그 땅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그들이 뒤로한 애굽의 땅은 암흑과 혼돈이었으며, 그들이 걸어간 땅은 메마른 광야였다.¹⁵⁾ 바로 출애굽은 회복의 시작이었다(Alfarro, 1978 : 56).¹⁶⁾

물이 없으며 초목도 자라지 않는 광야의 노정에서도 그들은 기대가 있었으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그 땅은 타락한 후에 있었던 땅, 곧 엉겅퀴를 내며, 황무하여 땀을 흘려도 소출의 내어주지 아니하는 저주받은 땅과도 다른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출 3:8 ; 신 26:9). 이제 잠시 후 그들에게는 저주가 철회되고 아름다운 땅에서 안식이 있을 것에 대한 기대에 가득찬 것이다.

출애굽의 구속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다. 성경은 그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는 고통소리를 하나님에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眷念)하셨다”고

15) 우리는 구속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대부분 같은 유형이 반복됨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생활은 창 1:2절의 혼돈과 혼암이 깊음위에 있는 땅의 상태와 비교할 수 있으며, 또 메마른 광야의 생활은 창 2:5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며 초목이 없고 채소가 없는 땅과 비교될 수 있다. 40년 동안의 광야는 약속의 땅을 가까이 바라보지만 들어갈 수 없는 이집트의 자손들의 에덴 동편에서의 삶과 비교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것은 뒤의 것의 모형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6) 출애굽의 사건은 또한 앞으로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구속의 모형으로서도 생각할 수 있다. 출 3:1이하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멀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였다. 하나님은 그 앞에 선 모세를 보고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다(5절).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장소이기에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는 에덴에서 있었으며, 이제 여기에서 나타났다가 앞으로는 성막의 지성소, 특히 속죄소 위의 두 구름천사 사이에 자리잡게 된다.

말한다(2:23-25). 또 한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내겠다”고 주장한다(6:6).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출 12:51). 그 이후 하나님은 계속 자신이 이스라엘을 업어 구출해 내었음을 주장한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출 19:4).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셨음을 고백한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신 26:8-9).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출 2:24 ; 3:15 ; 4:5 ; 6:5).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맷은 언약은 일방적이었고 무조건적이었다. 따라서 출애굽도 어떠한 전제조건이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 자신이 세운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모세 언약에 속하는 신명기서도 18번이나 그들이 들어갈 땅이 여호와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Miller, 1969 : 454).¹⁷⁾ 그 구절들에서 또 나타나는 특징은 그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그들에게’ 혹은 ‘너에게’ ‘우리에게’ 등으로 불리워짐) ‘주신 것’임을 말하는 문구이다. 이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현재는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줄려고 한다. 따라서 그것은 선물(gift)이 되는 것이다(Weber, 1971 : 3). 조상들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그 자손들(‘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이다. 아버지에게 선물로 주신것이기에 역시 그 자손들에게도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또한 신명기서에 땅과 관련하여 자주 나타나는 문구는 ‘가서 그것을 차지하라’(לְקַחַת, to take possession)는 명령이다.¹⁸⁾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서 ‘소유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노력이 아닌 믿음만이 요구되어진다(Weber, 1971 : 3). 역시 이것도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구절들이라고 생각한다.

또 신명기서에 ‘준다’는 말과 함께 사용된 용어는 ‘기업’(הַלְכָה)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다.¹⁹⁾ 이제 이스라엘은 방랑의 백성이 아닌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차지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2) 선물로서의 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은 좋은 것이어야 한다. 가나안 땅은 좋은 것으로 가득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준비된 땅이었다(Miller, 1969 : 456 참조). 모압 광야에서 선포된 언약문서인 신명기서에서²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은 좋은 것으로 가득차 있

17) Miller는 다름의 구절들을 주고 있다: 신 1:8, 35 ; 6:10, 18, 23 ; 7:13 ; 8:1 ; 9:5 ; 10:11 ; 11:9, 21 ; 19:8 ; 26:2, 15 ; 28:11 ; 30:20 ; 31:7 ; 34:4.

18) 신 3:19 ; 5:31 ; 12:1 ; 15:4 ; 19:2, 14 ; 25:19 ; 참조, 1:39 ; 4:1 ; 17:14 ; 26:1 (Miller, 1969 : 455 참조)

19) 신 4:21 ; 38 ; 12:9 ; 15:4 ; 19:10 ; 20:16 ; 21:23 ; 24:4 ; 25:19 ; 26:1 (Kaiser, 1981 : 305 참조)

20) 전에는 신명기서를 모세의 고별사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G. E. Mendenhall이 1954년 고대 Hittite 족들의 언약문서의 구조를 발표한 이후,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을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문서와 비교하는 학문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서를 Hittite 문서와 비교되는 언약문서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문헌들을 참고하라: Mendenhall, 1954 : 50-76 ; Kitchen, 1966 ; Kline, 1972 ; Vannoy, 1978 : 132-159 ; etc.

음을 밝힌다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체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초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신 6:10-1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시내와 분천(噴泉)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켈 것이라... (8:7-10).

그 외에도 신명기서는 약속의 땅을 ‘좋은 땅’으로 자주 묘사한다(1:25, 35; 3:23; 4:21f; 6:6:10-12, 18; 9:6; 11:17). 그리고 그 땅은 자주 “젖과 끌이 흐르는” 것으로 묘사된다(신 6:3; 11:9; 26:9, 15; 27:3; 31:20). 그 백성들은 그 좋은 땅에서 충분히 먹고 즐길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낙원을 연상케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다른 것들도 다 준비되어 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체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것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에 이미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 되어 있는 것이다.²¹⁾ 선물은 과연 좋은 것으로 가득찬 것이었다.

(3) 청지기로서의 사명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땅’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행복을 누려야 한다(15:4; 23:21; 28:8; 30:16). 이것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Weber, 1971:3).

이 행복(혹은 안식)은 땅을 수여받은 이스라엘이 ‘청지기’로서 땅을 잘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Oudersluys, 1979:6).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는 땅을 경작하여 소출을 생산해 내는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청지기의 사명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만이 그 땅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그의 소유권에 복종하는 것이다(Alfaro, 1978:55).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 6:12).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는 한 예를 우리는 십일조와 첫 열매를 바치는 율법에서 찾을 수 있다 :

21) 이것은 마치 에덴동산에 실과 등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하여 거기에 두신 것과 일치됨.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익은 곡신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민 15:18-20).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선물이라... (례 27:30).

첫 열매는 뒤의 열매들의 대표이며, ‘십의 일’도 전체에 대한 대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첫열매와 십의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와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승인하는 것이다.

신명기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섬기기를 명령한다. 그를 섬기는 방법은 정해진 성소에서 그에게 경배하는 것과(신 12:5), 또한 그가 명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두렵 전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 전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신 8:11-17).

율법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길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와 맺은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도 된다(브루거만, 1992:96).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때에, 땅의 소출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어질 것이다. 신명기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너희가 건너가서 일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 11:11-14).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이루어 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섬길 때에 그들은 땅을 계속 소유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땅에서 그들은 복(blessing)을 받을 것이다(Miller, 1969:458 참조).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 땅에서 복(blessing)을 누리기를 권면한다(5:16; 6:18; 28:11). 이 복에 관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었다(창 12:2, 3; 18:18; 22:18).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복을 위해 개방되어 있었다. 이제 하나님은 모압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하에서 복을 차지할 것을 권면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충실히 이행할 때에 그들이 얻을 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봄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신 28:11) :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23:3) ;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28:8).

신명기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지킬 때에 얻을 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그들이 땅을 계속 차지할 것이며 ; (2) 땅에서 풍족한 소산을 얻을 것이며 ; (3)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이며 ; (4) 자기 땅에서 편안히 거하면서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신 28:1-14).

율법(*תֹּרְאַת*)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물을 즐기는 방법이다. 율법을 존중할 때에 그들에게 성공과 번영이 따라온다. 이런면에서 볼 때에 율법은 복을 위한 것이며, 바로 복음과 직결된다(Sanders, 1975 : 381). 땅을 얻은 자들은 율법에로 부름받은 자들이며 유플을 존중해야 하는 자들이다. 유플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얻은 땅이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다(브루거만, 1992)107-109). 따라서 그들은 땅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땅을 바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유플이 주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물의 땅에서 얻을 행복을 ‘안식’(*שָׁבֵת*)이라는 용어로써 표현되어진다(출 33:14 ; 신 12:9). 이 안식은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바라는 궁극적인 희망이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후 그들은 이 안식의 기대에 가득찼다(수 21:44-45). 다윗의 언약에서도 이 ‘안식’은 핵심적인 희망사항으로 등장한다(삼하 7:10-11).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이제 이 ‘안식’을 기대하게 된다(왕상 8:56 ; 대상 22:9) (Kaiser, 1981 : 307). 그러나 그들이 유플을 지키는데에 실패함으로써 이 안식은 계속 그들에게 미래의 것으로만 추구되어지게 된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유플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들에게 ‘안식’ 대신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때 그들에게 미칠 저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할 것이며 ; (2) 그들의 몸에 염병과 폐병 등은 온갖 질병이 들 것이다 ; (3) 대적의 칼날에 넘어질 것이다 ; (4)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신 28:15-35). 그들이 당할 최종적인 별은 ‘땅을 빼앗아버리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땅을 지키고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 청지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사람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모세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Miller, 1969 : 460f 참조). 이를 위해서 먼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령한다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신 16:18-20).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도피성 제도가 설립되었다(신 19:1ff). 도피성은

무죄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신명기서에는 특히 도피성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라는 말을 여러번 언급하고 있다(19:8, 10).

사회정의를 위해서 다음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Alfaro, 1978 : 57). 성경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한다(출 22:21 ; 레 19:33-34). 오히려 그들은 옛날 자신들이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나그네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신 10:19). 신명기서는 그들을 위해 양식을 비축하여 두라고 명령한다(신 14:22-27, 29 ; 참고, 신 10:19 ; 24:19-22 ; 26:1-15 ; 레 19:23). 가난한 사람이 빈손으로 그들곁에 있으면 그들은 마땅히 도와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레 25:35f).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권리가 있으며, 주인은 그들을 위해 이삭을 떨어드리거나 얼마의 부분은 남겨 두어야 한다(신 24:19-22 ; 참조, 롯 2:2-17).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대할 때에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신 15:4).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한 장치로서 하나님은 희년의 제도를 두셨다(레 25:8-19 ; 출 21:2-11 ; 신 15:12-18) (Alfaro, 1978 : 58). 희년에는 팔았던 땅을 도로 돌려받으며, 팔려간 종들도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레 25:10ff). 이 희년의 제도를 잘 지킬 때에 그들은 땅에서 축복을 누릴 것이다(레 26:3-13).

세번째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는 땅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제정하시면서 제 7년째는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25:3f). 안식년은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더불어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땅을 학대하여서는 안된다. 땅도 쉼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람은 남의 기업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25:23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신다 :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느니라”(Alfaro, 1978 : 55).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한 것 이기에 그 가문의 대대로 이어지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민 36:2).²²⁾

하나님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으로 명령하였다(민 36:7). 따라서 만약 땅이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땅은 반드시 자기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하여 그 땅이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가는 일을 금지시켰다(민 36:8). 또한 유플에는 가족의 땅을 표시하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금지조항이 들어 있다(신 27:17). 호세아는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불의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한다(호 5:10). 지혜서도 역시 이것을 주지시킨다(욥 24:2ff ; 잠 23:10).

이스라엘 역사의 왕국시대에도 땅이 그 가문의 기업으로 철저하게 보존되어 왔음을 나봇의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스르엘 자기의 집 옆에 위치한 나봇의 포도밭을 탐을 내어 그 밭을 살려고 했다. 그러나 나봇은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는 말로써 거절하였다(왕상 21:3).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왕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다만 식음을 전폐하고 앓고만 있었다. 그러나 이방인 이세벨은 이러한 유플에 얹매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세벨은 간교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땅을 빼앗았다(21:11-16).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으며,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 예언되었다(17-26절).

22) 참고, 신 4:21 ; 4:38 ; 12:9 ; 15:4 ; 19:10 ; 20:16 ; 21:23 ; 24:4 ; 25:19 ; 26:1.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이 청지기의 사명을 충실히 시행할 때에 그들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역하여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 그 땅에는 평화가 없으며, 결국에는 그들은 땅을 잃게 될 것이다(Alfaro, 1978 : 51).

4. 약속의 땅을 차지함 (여호수아의 정복)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한 선물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서두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수 1:3).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하(1:6).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하사(下賜)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그 땅을 무력으로나 군사적으로 싸워서 쟁취할 것이 아니라(브루거만, 1992 : 88 참조). 그들은 단지 가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리는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난다 :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수 2:9).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상은 계속 나타난다.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은 하루에 한바퀴씩 7일동안 성을 돌기만 하였다. 맨 마지막 날에는 일곱바퀴를 돌고 그들이 외칠 때에 성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6:16).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며, 그 외에 다른 모든 성도 마찬가지였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신 일이었다.

정복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여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셨다 :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뜨�数 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수 13:6-7).²³⁾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각 지파들의 차례대로 재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다(수 14:2). 재비를 뽑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의존한다는 것으로(잠 16:33), 백성들이 불평함이 없게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지게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23) 나머지 두지파 반(르우벤, 갓 뜨�数 세 반지파)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모세에 의해 땅을 분배받았다 (민 32:33; 수 13:8).

하사하시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었거나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것이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산이며, 인간은 하나님에게 분배받아 누리는 청기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람은 땅을 자기의 소유물인 양 펼 수가 없다. 이것은 사람을 소유물과 같이 매매할 수 없음과 같다.

땅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임시로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들을 먹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책임져야 할 첫번째 분류의 사람은 레위인들이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 각 지파당 평균 네도시들을 기증받아 도합 48 도시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차지하였다(수 21:1-4).²⁴⁾ 레위인들은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흘으리로다”(창 49:7)라는 말씀에 따라 각 지파들 중에 살면서 최소한의 거주할 공간인 성읍과 목초지만 얻었다. 그들은 농사에 종사하는 대신 하나님을 직접 섬기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 따라서 다른 열한 지파가 레위지파를 위하여 소출의 십분의 일을 내어 먹여야 하였다 :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삼년 끝에 그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신 14:27-29).

땅을 가지지 않은 두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축 23:6; 신 15:7-11), 나그네들 (신 10:19), 이방 나그네들(출 22:21-24; 23:9), 고아와 파부(신 24:19-22) 등이다. 역시 이들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은 땅의 소출의 십분의 일을 내어 마을 창고에 비축해 두어서 그들의 양식을 삼아야 하였다(신 14:29).

이상의 사람들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이고 언약의 약속들에 참여하는 자들로 규정되고 있다(레 24:25-55; 신 15:1-11, 12-18; 22:1-4) :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25:35-38).

땅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 선물은 언약속에서 주어졌다. 따라서 땅은 모든 언약의 상속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브루거만, 1992 : 115).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의 과제는 땅을 보전하는 것이다.

24)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살인자가 도피해서 그 혐의에 판결이 날 때까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였다(수 20:1-9; 민 35:9-28).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이야기에만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라는 ‘선물’의 개념을 등한시 하여 왔다.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였고 자기들의 소유물로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은 땅을 잃게 되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들은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땅은 이스라엘 신앙에서 주변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한다.

V. 땅을 잃음과 회복에 대한 종말론 적인 기대

1. ‘안식’의 율법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한편으로는 땅이 없는 백성으로서 땅을 향하여 가고 그것을 소유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땅을 가진 자로서 땅을 잃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끝내는 땅에서 쫓겨나는 양면으로 이루어졌다. 땅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희망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땅을 소유한 그들에게는 땅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그들이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안식’이라는 축복이 더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위한 ‘안식의 법’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시내산에서 주어진 많은 율법중에서 레위기서 마지막 부분은 안식에 관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레위기 25:2은 이 안식의 법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후에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말한다.

출애굽기 20:10에 안식일에 관한 법을 주실 때에 “네 아들이나 네 땅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안식할 것에 촛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사람이 아닌 땅의 안식에 촛점이 주어지고 있다. 다음과 같이 안식의 법은 계속된다:

너는 육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육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제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레 25:3-5).

제칠년째는 땅으로 쉬게 하여,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출은 종들과 나그네와 들과 짐승들이 먹게 하라고 하신다. 이 안식년에 소산은 인간의 손과 노력이 배제된 하나님께 주시는 소출이다. 이 안식년에는 자연과 짐승과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즐기는 해이다. 출애굽기 20:11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고 제칠일에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안식년도 바로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해로 볼 수 있다. 안식년에 백성들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풀과 열매와 짐승을 주셨음을 상기하는 해이다. 특히 이해

만큼은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땅의 소출로 즐기도록 하셨다. 이러한 즐김의 안식은 회년에서 그 극치를 이룬다.

이상의 안식의 법을 백성들이 잘 시행할 때에 그들은 ‘안식’의 축복을 얻는다(레 26:3-13). 안식의 축복은 풍족한 소산을 먹으며, 적으로부터의 보호함을 받아 자기의 땅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 법을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땅이 황폐화되고 그들이 그 땅을 잃을 것이다(레 26:14-39). 이것은 마치 에덴동산에 거하던 첫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나타난 결과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레위기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칠탐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화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레 26:21, 31-33).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26:34-35).

본문은 이스라엘이 안식의 법을 이해하지 않아 땅이 안식하지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 그들을 타국으로 잡혀가게 하여 땅으로 안식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의 율법을 잘 지킬 때에 사람과 땅이 함께 안식하는 축복을 받으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 사람에게는 고난이며, 땅은 억지로 쉬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을 거스리는 배반의 연속이었다. 결국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황무하여 졌으며 그들은 면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단 9장 특히 7, 16-18절 참조). 포로 말기 혹은 포로 귀환 때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역대기서는 포로의 상황을 레위기서의 예언과 일치시킨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람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불이시매 저가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년을 지내었으니...(대하 36:15-21).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성전이 불타고 토지가 황무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2. 땅의 회복에 대한 종말론 적인 기대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의 축복을 약속한 반면 멸망의 징계도 아울러 주어졌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땅을 잃음에 대한 경고로만 마치지 않는다. 레위기서 본문은 땅을 잃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 땅을 다시 권고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자기좌와... 허물을 자복하고...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맷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험고하리라...(레 26:40-42).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44-46절).

이스라엘 역사는 땅을 잃음이 큰 이유였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땅을 잃었으며, 신약시대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 땅을 잃고 방랑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땅을 잃음으로서 종결지울 수 없다. 그들은 땅을 잃음과 동시에 땅을 다시 찾을 희망을 가지는 민족으로 계속 살아 남아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역시 언약이 보증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Hertzberg, 1970: 426). 만약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것은 앞으로의 완전한 것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정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의 약속은 영원토록 유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중에서도 ‘땅’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들의 땅에 대한 기억은 주후 132년(Bar Cochba 반란) 이후 흩어진 유대인들(diaspora)에게도 남아 있었다는 것을 랍비문학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Ketubot 11ob; Responsa of R. Isaiah Trani II, 25; Hertzberg, 1970: 426 참조). 이 사상은 현대 시온주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남아 있으며, 1844년 이후 유대인들이 급속도로 팔레스틴으로 이주해서 나라를 형성하는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땅을 잃음’을 경험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흩어진 백성이 ‘옛 땅으로 돌아 올 것’을 끊임없이 예언한다.²⁵⁾ 그러나 그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 포로로 부터 귀환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물론 많은 구절들에서 직접적으로 바벨론 포로귀환을 명시한 것도 있지만, 그들은 다시는 ‘땅의 잃음’이 없는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스겔 34장에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그들의 옛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13절), 거기서 하나님은 한 목자를 그들위에 세워 그들을 먹이면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한다(23절).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는 악한 짐승이 헤치지 못하고 이방인의 길이 위험하지 못하며(평화) (25, 28절), 열매와 소산이 풍성할 것이며(27, 29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30절). 이것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묘사이다. 에스겔 36장도 열국에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아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24절), 황폐하던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33절), 황무하던 땅은 땅이 기경(起耕)이 되며(34절), 밭에 소산이 풍성하고 다시는 기근이 없을 것이며(29절), 전에 황무하던 곳이 마치 에덴동산 같이 될 것임을 묘사한다(35절).

이상의 예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기 보다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땅의 회복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가랴 선지자 조차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흩어진 백성들이 고토(故土)로 돌아올 것에 대한 미래적인 희망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아서 선지자들이 가진 땅의 회복은 종말론적임이 확실하다(슥 1:12; 8:7f; 10:8-12 등).

종말론적인 땅의 회복에 대한 묘사는 이사야서에 그 극치를 이루고 있다:

25) 렘 3:14, 18; 16:14; 29:10; 24:6; 30:3, 10; 31:8, 16, 23; 32:37; 33:7; 젤 11:17; 16:53; 20:33f; 36:24; 37:12, 21; 39:25 등등 (한정건, 1987: 215f 참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젓먹는 아니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사 11:6-9).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짖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사 65:17-25).

이스라엘은 ‘잃음’과 ‘찾음’의 역사의 와중에서 그들은 현재의 상황과 다른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과 평화로우며, 풍성한 소산을 가질 완전한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말론적인 기대로 승화시키고 있다.

3. 회년을 제정하심

회년의 의미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번 동안 곧 사십구년이라.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회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레 25:8-10).

‘안식년’ 다음에 큰 절기는 회년이다. 안식년이 일곱번 지난 다음해에 이 회년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였다. 이 회년에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을 기경하지 않아 땅으로 쉬게 할 뿐만 아니라, 팔려간 종들이 해방되어 자유가 선포되며, 전에 팔렸던 옛 땅이 원래의 가문으로 돌아온다.

회년은 땅이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선언하는 행사이다(레 25:23). 땅은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Kaiser, 1981: 305). 혹시 가난하여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하나님은 회년의 제도를 두셔서 거듭 그 가문의 기업이 보존되게 하시는 안전 장치를 두신 것이다(IV, 3, (3) 참조할 것).

그러나 우리는 회년을 제정하신 의미를 단지 이스라엘 역사속에서 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만으로 볼 수 없다. 이 회년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음을 간파하여서는 안된다(라이트, 1989: 106-124 참조). 앞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옛 땅을 잃고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말하였다. 회년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로에서 회방될 것임을 가르쳐 주는 맷세지 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잃었던 옛 땅을 도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담겨있는 절기이다.

앞에서 본 바와같이 레위기에 나타난 ‘안식년’의 제정은 인간의 노력을 그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산으로 사람과 짐승 자연이 함께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칠년

만에 한번씩 창조질서의 회복을 누리는 축복을 의미한 것이다. 성경은 ‘안식일’이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 하심을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밝혔다(출 20:11). 창조질서에서 있었던 ‘안식’의 모습은 에덴동산에서 나타났다. 사람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끓었으며, 땅에서 죽거나 유리하는 자가 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창 3:17). 땅도 저주를 받아 영킹퀴를 내고 풍족한 소출을 내어주지 않게 되었다(창 3:17하-19). 레위기에서 ‘안식년’은 타락이전의 인간과 땅의 모습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안식일의 제정은 옛 에덴을 향한 막연한 동경보다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안식을 맛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히 4:4-11). 따라서 안식일의 율법을 주셨음은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식년은 미래의 참된 안식을 맛보기 위한 오히려 작은 절기에 불과하다. 보다 더 큰 안식년 혹은 궁극적인 안식은 ‘희년’이다. 희년은 미래에 완성될 참된 안식의 진정한 모형(type)이다. 이 희년의 안식에는 ‘안식년’에서 가지지 못하였던 두가지가 더하여졌다: 첫째는 종들이 해방되어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며; 둘째는 그들이 옛 기업을 되찾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따라서 개개인의 사람은 남에게 종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의 가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메시야 왕국에 대한 희망

희년의 행사는 ‘속죄일’에 나팔을 불으로 시작된다.²⁶⁾ 성경은 이 때에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 희년임을 알리라고 한다. 이 희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제이다. 성경과 가경(Pseudepigrapha)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그들이 궁극적으로 회복할 미래에 완성될 메시야 왕국에 대한 기대로 승화시키고 있다. 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희년의 율법을 그리워하면서 실제 그들에게 희년과 같은 해방과 옛 땅으로 돌아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외경 ‘희년서’(The Book of Jubilees)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까지의 역사를(출 12장) 일곱사이클로 구성하여 일곱 사이클의 일곱번째인 희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으로 역사를 짜 마추고 있다. 큼람의 제 11동굴에서 발견된 ‘멜기세덱’ 문서에도 나팔을 불어 해방을 알리는 희년을 주제로 멜기세덱이 세상 악한 무리들을 쳐부수고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한정건, 1986 참조).

성경에서 ‘희년’의 사상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26) 고대 히브리 왕국에서는 한해의 시작은 ‘니산’월(3월중순-4월중순)에서 시작하는 법이 있으며 ‘티쉬리’월(9월중순-10월중순)로 시작하는 법이 있다. 균동지방의 대부분의 나라들 – 즉 앗수르 바벨론 이집트 등 – 은 니산월력을 사용하였으며, 북왕국 이스라엘도 니산월력을 사용하였다. 반면 남왕국은 ‘티쉬리월력’을 사용하였다. 비록 ‘티쉬리월력’을 사용할지라도 달의 순서를 불일 때에는 ‘니산’월을 첫째 달(정월)로 부른다. 따라서 ‘티쉬리’월은 일곱째 달이 된다(이를 위해 딜레, 1990 : 57-59를 참조할 것). ‘대속죄일’은 ‘티쉬리’월에 있는 축제이다. ‘희년’의 축제는 ‘티쉬리’월을 한해의 시작으로 본 ‘티쉬리 월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니엘 9장의 70이래 예언

다니엘 9장은 다리오왕 원년에²⁷⁾ 선지자 예레미야의 ‘포로가 70년만에 마치리라’는 예언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간구함으로써 시작한다(9:1-2).²⁸⁾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70년이 아닌 7번이 더 있어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대답하였다. 70년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포로의 기간이다.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로 잡혀온지 70년이 된 것을 기억하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을 맞는 안식의 때가 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귀환은 이스라엘의 가질 궁극적인 안식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이와같은 기간이 일곱번 더 있어야함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다니엘 9장과 같은 시기의 저작인 역대기서 마지막 부분은 역시 70년 포로를 안식의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년을 지내었으니...”(대하 36:21). 여기에 나타나는 안식의 개념은 레위기 25장의 것과 일치한다(사람의 안식이 아닌 땅이 안식하는 것으로 말해짐). 따라서 레위기 25장과 역대하 25장 그리고 다니엘 9장은 서로 안식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니엘 9장은 70년을 안식년으로 인식하고 이것의 일곱번이 지나야 영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 이것은 레위기의 희년의 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니엘 9:25-27절은 ‘70이래’를 세구분하여 각 구분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을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구분인 ‘한이래’의 고난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이에 대한 깊은 토론은 한정건, 1992: 95-128 참조 바람).

4. 롯기서에 나타나는 땅의 회복

롯기서 4장은 구약에 나타나는 “구속”(גָּאֵל)이 가장 많이 사용된 장중에 하나이다. 롯기서는 땅을 ‘잃음’과 ‘찾음’의 한 예가 주어지며, 또한 이 책은 영원한 구속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사들의 시대에 베들레헴에 홍년이 들어 엘리멜렉은 자기의 기업을 팔고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였다. 이방의 땅 모압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은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부 룸 만이 옛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를 나오미(=my delight)라 칭하지 말고 마라(=bitter)라고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라고 한 나오미의 말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얼마나 큰 고통중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고향에 돌아온 그들은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연명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밭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이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들의 가까운 친

27) 단 9:1에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말하나 실제 아하수에로(Xerxes I, 486-465 BC) 이후의 다리오 2세는 주전 423-404년의 통치자로서 다니엘이 그때까지 활동하였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나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한 메데의 이름으로 추정되며,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는 말은 복사기에 의한 실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리오와 고레스에 대한 상관관계는 Baldwin, 1978: 23-28을 참조하기 바람).

28) 흔히 9:3-19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다니엘의 기도이며, 9:24에 있는 ‘70이래’에 대한 예언도 메시야 초림에 의한 죄사함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죄사함에 대한 요청으로 시작하지만 그 목적은 “황폐된 예루살렘”과 포로로 고생하는 자기 백성을 위함임이 여러 곳에서 분명히 나타난다(7, 16, 17, 18, 19 등 참조).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지는 ‘70이래’의 예언도 거룩한 성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24절상). 이를 위해 한정건 1992: 96-99를 참조하기 바란다.

척으로 그들을 ‘구속’(גָּאַתָּה, 한글개역성경은 ‘기업을 무를 자’로 번역함)할 자 중의 하나로 인식하였다(룻 2:20하).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갔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밭을 사서 그 가문에 돌려줄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그 가문을 잇게 하였다. 이로써 씨가 끊어진 것과 같은 그 가문이 회생하며, 그들의 기업도 도로 찾게 된 것이다(룻 3-4장).

룻기서에 보아스를 엘리멜렉의 가문을 구속한 ‘구속자’로 치칭할 수 있으며, 이 구속은 ‘잃었던 옛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도로 돌려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5. 신약에 나타난 ‘구속’(롬 3:21-25)

바울은 로마서 3:19-20에서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율법은 죄를 지적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게 한다고 그 기능을 정의한다. 21절에 “그러나 이제는”²⁹⁾ 유틀법외에 “하나님의 한 의(義)”가 나타났음을 알린다. 이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유틀법의 기능과 반대되는 것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23절) “온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청의) 역할을 할 것이다(24절하).³⁰⁾ 이 ‘청의’(justification)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진다(24절상).

헬라어 λυτροω(구속)라는 용어는 고대 헬라문학에서는 ‘속전’(ransom, 특히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Cranfield, 1975: 206-207). 신약에서도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6:20과 7:23에서 “값으로 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전에 우리가 ‘종’이었던 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서 자기의 종으로 삼았음을 증거하고 있다(갈 3:13; 4:5 참조).

헬라어 λυτροω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 נָאָתָה 와 그 17절로서 이들이 구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짐승으로 대신 죽게 함(민 18:15);³¹⁾ (2) 기업을 무릅(룻 2:20; 3:9, 13; 4:1, 4, 6, 7, 8, 9, 10 등). 이상의 두 경우에 모두 “대신 값을 지불하다”(속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헬라어 λυτροω의 뜻과 일치한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구속인 נָאָתָה은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남’ 뿐만 아니라 ‘잃었던 땅을 도로 찾음’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로마서 본문은 이상의 구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 3:25절은 이 구속을 좀더 설명해 준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체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성경에 “화목체물”로 번역된 헬라

어 ἀλαστηριον은 ‘속죄소’이다.³²⁾ 속죄소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 법궤의 뚜껑으로서 율법을 덮는다; (2) 구름 사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이다. 이상의 두 기능은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질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앞의 19-20절은 심판의 기능이 있음을 말하였다. 법궤안의 두 돌판은 율법의 요약이다. 따라서 법궤의 뚜껑인 피문은 ‘속죄소’는 심판을 덮는 기능을 한다. 즉 속죄소에 묻힌 피는 ‘대속’으로 뿌려졌으며, 죄의 값이 이미 지불되었기에 더 이상 심판이 없음을 나타낸다. 또한 속죄소 위에 새겨진 그룹이라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로서, 창세기 3:24에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 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실 때 등장하였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다.³³⁾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이라는 천사로 지키게 하시고는 이 땅에서 동산을 감추시고 말았다. 하나님은 에덴을 감추셨지만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지성소에, 그것도 속죄소 위 그룹사이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였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지성소이다. 지성소, 바로 속죄소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던 에덴의 그림자이고, 앞으로 우리가 얻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바로 속죄소는 에덴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기에 인간은 잃었던 에덴을 도로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피문은 속죄소를 제시하심’은 바로 옛 잃었던 땅을 돌려주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약에서의 구속(혹은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지며, 그가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속하셨음과,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구속은 그가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잃었던 우리의 옛 땅을 도로 돌려줄 것이며, 우리가 축복의 땅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함으로써 완성됨을 증거한다.

VI. 적용과 결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역사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잘 정돈하시고, 그 땅을 축복하셔서 준비하심으로 시작된다. 또 하나님은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 축복의 땅으로 사람을 취하여 옮기셨다. 인간은 준비된 그 ‘땅’(에덴)에서 안식을 누렸다. 천지창조 기사에서 성경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인간은 그 땅을 관리할 ‘청지기’임을 밝힌다.

29) 개역한글성경에는 “이제는”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헬라어는 νυνδε(But now)의 두 단어로서 “그러나 이제는”으로 번역해야 하며, 이것은 앞에 말해진 유틀법(심판의 기능을 가졌다)과 반대되는 그 무엇을 말할려고 하는 도입이다.

30) “의롭다 함을 얻음”(being justified)은 ‘청의’(稱義)(justification)라는 신학적인 용어로써 함축되며, 로마서 본문에 의하면 ‘청의’는 법정용어로서 재판에서 ‘무리한 혹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31) 민 18:15에는 한글개역성경에서는 “대속”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처음난 남자 아이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비둘기 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대속할 지니라”라고 명령하였다. 이 대속이 유례는 유월절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장자들의 죽음을 면했다. 즉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사람의 죽음을 ‘대속’ 한 것이다.

32) ὁν προεθετο ὁ θεος ἀλαστηριον (“하나님이 그(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제시(혹은 揭示)했다”). ἀλαστηριον은 히 9:5에 구약성전의 여러 기물을 소개하는 중 ‘속죄소’로 사용되었다.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는 기물로서, 그것은 법궤의 뚜껑이다. 법궤 안에는 10개명이 기록된 두 돌판들이 있고 속죄소는 이 돌판을 덮는 뚜껑역할을 하며, 또한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새겨져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고 하셨다(출 25:17-22; 26:34; 37:6-9 등).

33) 창 3:8에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는 표현에서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당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땅을 잃게’ 되었다. 땅은 더 이상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이 땅을 훌려야만 열매를 주는 땅으로 바뀌었으며, 인간은 땅을 잃은 방랑자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사람이 땅을 도로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이 언약은 종주권 언약으로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받을 ‘복’까지도 약속하였다.

땅이 없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구속하였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 거듭 옛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 땅은 사람이 살기에 잘 준비된 땅이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의 땅’은 좋은 것으로 가득찬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 주신 율법에서 그 땅을 각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보존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청지기의 사명을 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 땅은 그 가문에게 ‘선물’로 주어진 기업이기에 대대로 보존하여야 하였다. 땅은 팔거나 다른 가문으로 이전할 수 없었다. 만약 가난하여 일시적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에는 그 가족에게 땅을 도로 돌려주어야 하였다.

그들은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섬겨야 하였다. 그 방법으로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땅’과 ‘복’에 관계된 대표적인 율법은 ‘안식’에 관한 것이었다. ‘안식년’은 ‘땅으로 쉬게하라’는 율법이었고 ‘희년’은 옛 ‘기업을 도로 찾으라’는 법이었다. 이 법들을 땅을 학대하지 말 것과, 땅을 임의로 자기의 소유로 만들지 말 것임을 명령한 것이다.

‘안식년’과 ‘희년’은 땅의 공개념을 잘 밝혀주는 율법이다. 만약 이 율법을 잘 시행할 때에 그들은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었으며, 반대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는 ‘땅이 황폐되고 땅을 잃는’ 저주를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안식년’과 ‘희년’의 법에 나타나는 축복을 볼 때에 현재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만 만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있었던 ‘안식’을 기억하는 제도였으며, 미래에 차지할 영원한 땅에서 받을 축복을 바라다 보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에 처하였으나 땅을 잃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희년’의 사상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영원한 회복을 바라 보았다.

구약성경 전체는 ‘땅을 잃음’에서 ‘땅을 찾을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쳤다. 이 땅을 찾음은 롯기서에서 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롯기서는 이것을 ‘구속’(גָּאֹל)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한편으로는 땅이 없는 백성으로서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것을 소유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땅을 가진자가 다시 땅을 잃어버리는 양면의 연속이었다.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선지서들을 땅을 잃은 사건에서 그들이 땅을 도로 찾을 기대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기대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아니 현 20세기에도 이스라엘에게 이 땅의 회복의 약속은 계속 유효한가? 물론 이스라엘은 메시야인 예수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반문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거부

때문에, 또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그렇게도 자주 어긴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어진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무효화되어야 하는가?”(카이저, 1989: 57). 하나님이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언약의 한쪽 당사자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만 의존하여 언약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다(idem: 60). 신약에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고 증거한다(롬 11: 1ff, 한정건, 1987: 252–311 참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언제 성취되었는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그 약속의 성취는 끝났는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도로 잃고 말았으며,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옛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귀환은 그 약속의 성취로 보아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포로귀환후 선지자인 스가랴까지도 계속하여 열방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 모을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자자들은 이 약속은 “이새의 출기에서 나온 쪽”으로 말미암아 실현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사 11: 1).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성취할 자로 오신 분으로 증언한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출 것이다(눅 1: 54–55; 2: 31–32). 로마서 3장은 그가 이루는 구속을 잘 설명해 준다. ‘구속’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었다. ‘죄’의 댓가인 죽음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빚어진 ‘잃었던 땅’도 도로 찾게 된 것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땅을 찾음은 일시적이요 모형적이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였다(히 4: 8ff).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회년의 축복도 그들이 일시적으로 누린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영원한 ‘땅의 회복’을 위해 주어진 종말론적인 맷세지로 보아야 한다. 바벨론 포로의 회복도 영원한 회복을 향한 교훈을 거듭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 20세기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도 구약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로 볼 수 없다. 예언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이며, 종말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것이다.

노아의 언약은 만민을 포함한 것이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축복의 대열에 끼일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회복에 관한 축복은 이방인들도 공유하여야 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만민의 회복, 자연의 회복을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스라엘은 과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궁극적으로 그 축복에 참여할 특권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인들이 회복된 나라에서 ‘땅’을 소유하여 옛 에덴에서 있었던 그러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인간은 땅에 살면서도 “고향상실증”에 빠져있으며, 땅에 얻을 진정한 복을 찾을려고도 하지 않는 무력증에 빠져있다고 하겠다. 부자는 땅을 소유했다고 하여 자랑하고 가난한자는 자기에게는 땅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모두 다 땅에 대한 진정한 신학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는 착각이다. 우리에게서의 행복은 현재 내가 땅을 나의 소유로 획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얻게 될 땅에서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땅을 잃었지만 오히려 미래에 있을 땅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미래에 대한 추구로서 오늘의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서 적

- Alfaro, Juan I.
1978 "Land-Stewardship", *Biblical Theological Bulletin* 8 : 51-61.
- Cranfield, C. E. B.
1975 *The Epistle to the Romans :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vol I, Edinburgh : T & T Clark.
- Davis, W. D.
1974 *The Gospel and the Land*,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 Green, W. H.
1979(rep) *The unity of the Book of Genesis*, Grand Rapids : Baker.
- Harrison, R. K.
1969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 Eerdmans.
- Hauge, M. R.
1975 "The struggles of the Blessed", *Studia Theologia* 29 : 1-30.
- Kitchen, K. A.
1966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 London : IVP.
- Kline, M. G.
1963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Grand Rapids : Eerdmans.
- Mendenhall, G. E.
1954 "Covenant forms in Israelite tradition", *Biblical Archaeologist* 17 : 50-76.
- Miller, P. D.
1969 "The gift of God : Deuteronomic theology of the land", *Interpretation* 23 : 451-65.
- Oudersluys, R. C.
1979 "Israel : the land in the Scripture", *Reformed Review* 33 : 3-15.
- Kaiser, W. C.
1981 "the promised land : a biblical and historical view", *Bibliotheca Sacra* 138 : 302-12.
- Ruether, R.
1978 "Israel and the land", *Chr Chris* 38 : 147-51.

Vannoy, J. R.

1978 *Covenant renewal at Gilgal*, Cherry Hill : Mack Pub.

Weber, Hans-Ruedi

1971 "The promise of the land", *Study Encounter*, 7(no. 4) : 1-16.

브루거만, W.

1992 성서로 본 땅, 강성열 옮김, 나눔사.

이병렬,

1987 에레즈 이스라엘 : 히브리민족, 땅의 역사와 그 의미, 요단출판사.

1985 히브리 민족의 원역사, 페트라성경원어연구원.

라이트, 크리스토퍼 J. H.

1989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정옥배 역,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IPV).

카이저, W. C.

1989 새롭게 본 구약, 김의원 역, 도서출판 바실래.

최의원

1986 구약논문집, 기독교문서선교회.

한정건

1986 "멜기세덱 : 11QMel과 히브리서의 비교연구", in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 한석 오병세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7 *The reatoration of Israel in covenant perspective*, Th D. Thesis, Potchefstroom University.

1990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종말론 강해, 기독교문서선교회.

高神大學校
論文集第20輯
1993 pp. 207~248

성령으로 세례베푸심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Baptizing In The Holy Spirit -

김 경 철 조교수

目

次

I. 서 론(序論)

1. 본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전제(前提) 및 접근 방법(方法)

II. 본 론(本論)

1. 신약성경에 나타난 세례(洗禮)
 - 1-1 요한의 세례
 - 1-2 기독교 세례
 - 1-3 예수 그리스도의 수세(水洗)와 성령(聖靈)
2. 사도행전과 고전 12:13에 나타난 성령세례
 - 2-1 2:1-39 오순절 성령세례
 - 2-2 8:4-24 사마리아에서의 성령세례
 - 2-3 10:44-48 고넬료 가정의 성령세례
 - 2-4 19:1-7 에베소 지역 제자들과 성령세례
 - 2-5 고전 12:13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3. 성령으로 세례베푸심 - 특성(特性)
 - 3-1 새 언약시대의 한 특징으로서의 성령세례
 - 3-2 보편적 축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의 성령세례
 - 3-3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으로서의 성령세례
4. 오순절주의의 "성령세례" - 재조명(再照明)

III. 결 론(結論)